

SK, 2006년 1월 임원인사 단행

SK그룹이 2006년 1월 계열사간 임원급 인사의 폭넓은 교류를 골자로 하는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관계자는 2004년과 2005년에는 3월 정기주주총회 직후 인사를 실시했으나 2006년에는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안을 조기 확정해 1월 중순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월4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1998년 취임한 이후 주로 연말에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해왔으나, 2003년에는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려 인사를 하지 못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3월 정기주총에서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주총 이후에 인사를 단행했다.

<화학저널 2005/12/06>